



[이사람] 청소년파크골프협회
김홍규 회장 <3면>

경서일보

www.gsdaily.co.kr



[현장] '생명존중 콘서트' 행사
열기 후끈 <6-7면>

2013년 5월 23일 창간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음력 9월7일

주간신문 복간 6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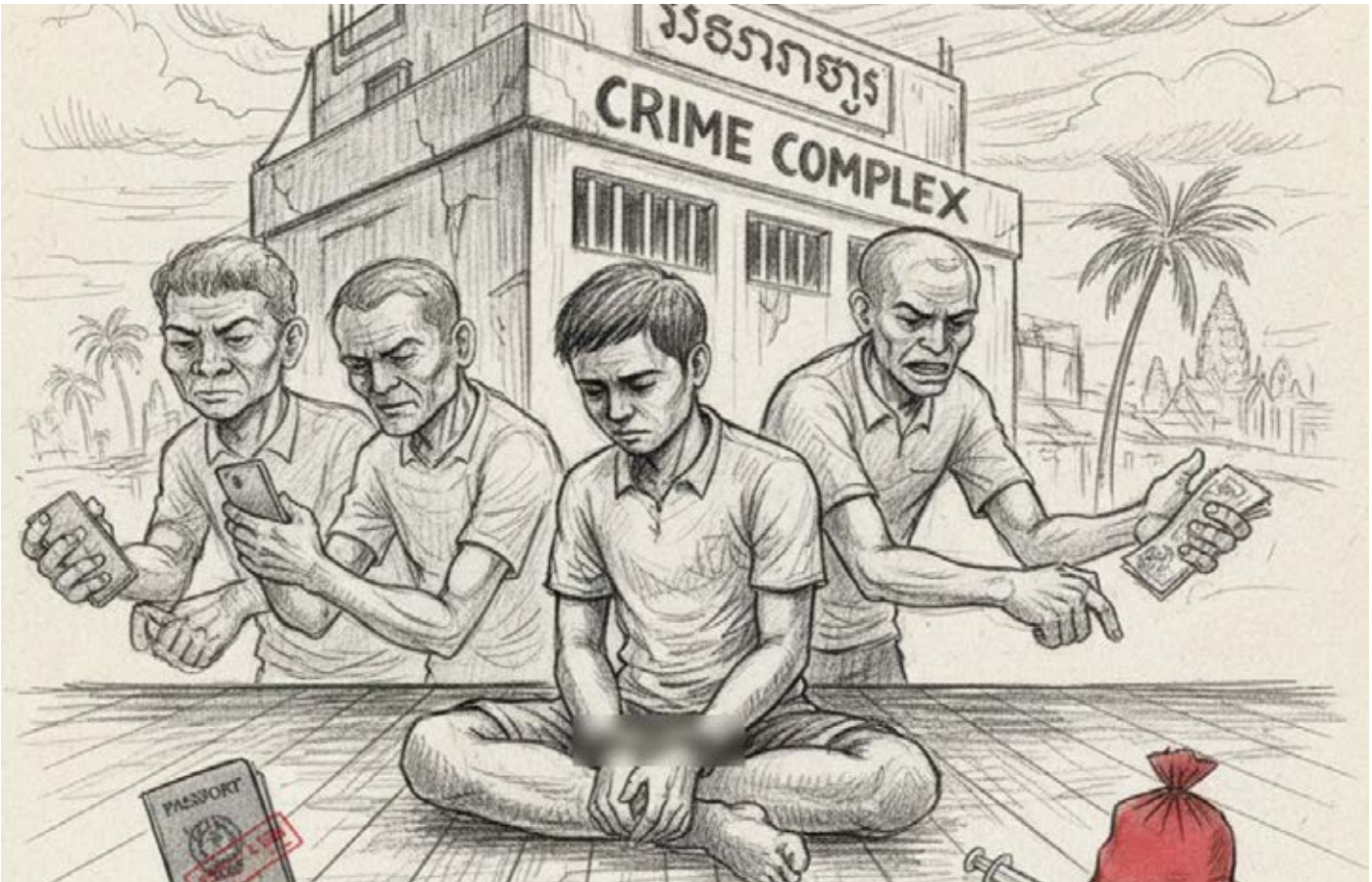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태’ 충격

‘동남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관련 사망 및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민사회와 국내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 변사 사건부터 잔혹한 고문 살해, 그리고 최근 발생한 50대 남성 호텔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비극은 캄보디아 일부 지역이 ‘신종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연애빙자 사기(스캠)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지’의 존재가 공공연한 비밀로 떠오르면서, 한국 청년들이 고액 일자리의 유혹에 속아 착취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비극적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감금·폭행·고문...싸늘한 주검으로

가장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은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르산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 모(22) 씨의 고문 사망 사건이다. ‘박람회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났던 박 씨는 차량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박 씨의 사망 증명서에 사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라고 명시하며 그 잔혹성을 시사했다. 박 씨는 고수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한국인 모집책에 속아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유인됐으며, 이후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 행위를 강요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의 주범이 국내를 뒤흔들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는 사실로 이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파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고임금의 덫에 걸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실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AI이미지)

‘고수익 알바’ 미끼로 유인...보이스피싱·스캠 등 범죄 강요 시하누크빌 중심 범죄단지 형성...한국인 가담자 상당 심각

이는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단순 사기를 넘어 마약 유통 등 국내 주요 강력 범죄와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직적인 범죄에 의해 희생된 한국인의 사례는 2년 전 발생한 유명 인플루언서 고(故) BJ A씨 사망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6월, 프놈펜 인근 웅덩이에서 발견된 A씨의 시신은 당시에 큰 논란을 낳았다. 시신이 심하게 부어 있는 등 폭행 흔적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주장과 피해자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는 중국인 부부 용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돈에 눈멀어 조직에 가담 ‘검은 이주’

문제의 핵심은 캄보디아 일부 지역, 특히 시하누크빌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범죄 단지’다. 이곳은 온라인 도박, 금융사기 등을 위해 건설된 일종의 요새화된 구역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범죄자들이 모여들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감금, 고문,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한 번 들어가면 외부와 단절돼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해 심각성을 더한다. 결국 캄보디아는 한국인 범죄자

들에게도 은신처이자 활동 무대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결사건 증가...사법공조 강화 시급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아직 미해결 상태라고 밝히, 현지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와 열악한 수사 환경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얼마전 캄보디아 국경 인근 베트남 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한국인 관련 사망사건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양상까지 보인다. 경찰은 이 여성의 사망이 현지 사기 범죄 집단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사망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이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인신매매 및 사기 조직의 발호, 열악하고 부패한 현지 사법 시스템 그리고 범죄의 유혹에 넘어간 한국인 가담자들의 복합적인 결과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인 모집책 및 총책에 대한 강력한 국내 수사와 함께 캄보디아 정부와의 사법 공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의 핏빛 그늘에 스러지는 한국인들의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팀

2023년 6월 2일	캄보디아 입국	유명 인플루언서 BJ A씨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 입국.	활동 중단 후 "일반인으로 새 삶을 살겠다"고 밝힌 지 약 3개월 만의 해외 출국.
2023년 6월 6일	프놈펜 칸달주 공사장 인근	BJ A씨, 붉은색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 유기된 시신으로 발견.	시신 유기 혐의로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30대 중국인 부부 검거. 부부는 '병원에서 주사 후 발작 사망' 주장, 일부 목격자는 '폭행 흔적' 주장하며 고문 및 살해 의혹 제기.
2023년 7월 (추정)	캄보디아 범죄 단지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22)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모집책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 범죄 단지에 감금.	대포통장 모집책 등 국내 알선 조직 일부가 검거됨. 박 씨 가족에게 거액의 금품 요구 협박 전화가 걸려옴.
2025년 8월 8일	캄포트주 보코르산 인근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 차량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	현지 경찰, 사망 증명서에 사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명시. 납치·감금 및 고문 흔적 확인.
2025년 8월 초~10월 중순	캄보디아 현지	박 모 씨 시신, 부검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두 달 이상 현지 사원에 안치.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하여 사태 해결 및 수사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
2025년 10월 7일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	30대 한국인 여성 A씨 숨진 채 발견.	국내 경찰, 현지 사기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 등 경위 조사 착수.
2025년 10월 17일	시아누크빌 주립병원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으로 적색 수배된 50대 한국인 A씨가 심장 질환 등으로 뇌 일 전(6월) 사망한 사실 뒤늦게 파악.	장기 불법 체류자로 가족 연락 두절로 무연고 처리. 현지 범죄 연루자 사망 사례.
2025년 10월 20일	프놈펜 톨라 사원	대학생 박 모 씨 시신, 한국 및 캄보디아 수사 당국의 공동 부검 실시. 이후 화장하여 유해 송환 결정.	사망 74일 만에 유해가 국내로 돌아옴. 부검을 통해 시신 훼손 여부 등 확인.
2025년 10월 20일 저녁	시아누크빌 호텔 객실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 숨진 채 발견.	현장에서 유서 추정 메모 발견. 스캠 사기 연루 등 정확한 사망 배경 조사 중. 외교부, 영사 급파하여 영사 조력 제공.
2025년 10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서울)	국가정보원 보고.	대학생 박 모 씨 살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총책의 공범임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고 보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스캠 범죄 가담자가 1천~2천 명으로 추산됨.